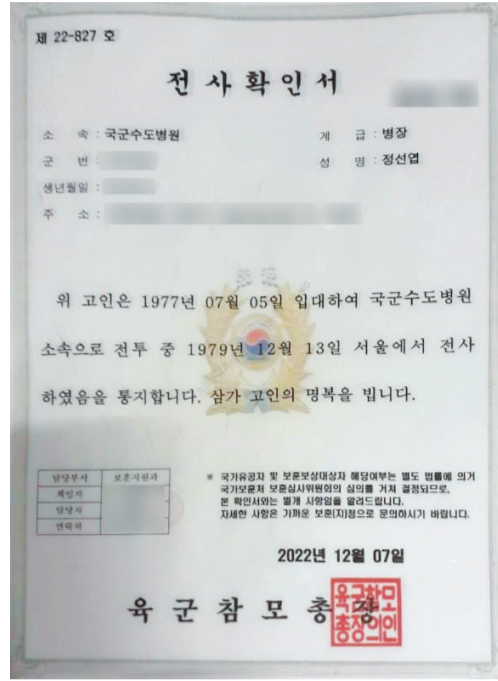


'전두환 반란군'에 맞선 정선엽 병장을 아십니까

영화 '서울의 봄' 육군본부 B-2병커 지키던 '조민범'의 실제 인물
동신고 재학시절 '홍사단' 활동...조선대 다니다 자원 입대
공수부대 총기 탈취 시도에 저항...제대 3개월 앞두고 사망
영화에선 한 컷 그쳐 아쉬워...2022년 '순직'서 '전사' 정정



지휘하는 공수부대 병력이 국방부를 점령하려고 몰려 온 것이다. 영화 속에서는 반란군의 "비키라"는 명령에 거부하다 총격을 맞아 쓰러졌지만, 그의 죽음은 실제와는 약간 다르다.



하지만 지난해 국방부 산하 군사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회) 조사 결과 정 병장은 '전사자'로 결정됐다. 위원회 조사에서 당시 현장에 있던 대위는 "B-2 병커로 진입하라"는 명령을 받고 약 50명의 대원을 이끌고 청사로 진입 중, B-2 병커 입구를 지키던 헌병이 우리 대원의 무장해제 요구를 거절해 결국 총을 발사해 사망했다는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정 병장이 권총에 의해 사살됐다'는 진술을 하는 일부 군인들도 있었지만 정병장의 후임병과 다수의 당시 군인들은 "병커에 침입하던 공수부대원이 헌병의 소총을 탈취하려고 했고, 이에 헌병(정 병장)이 거세게 저항하자 총격을 가해 사망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13일 새벽 1시40분께 국방부를 점령한 공수부대원들이 정 병장의 엠(M)-16 소총을 빼앗으려 하자 정 병장은 "중대장의 지시 없이는 줄 수 없다"고 맞섰고, 이 과정에서 정 병장은 공수부대원이 쓴 총에 목과 가슴에 4발의 총을 맞고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정병장의 형 훈재씨에게 정병장의 전사확인서를 보내왔다. (광주일보 2022년 12월 12일자 6면) 영화를 본 훈재 씨는 "동생의 명예가 회복돼 자랑스럽지만 영화에서는 관련 내용이 부각되지 않아 아쉬웠다"면서 "하지만 동생을 죽음으로 내몰고간 전두환이 12·12뿐 아니라 5·18에 대한 사죄의 한마디도 없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너무나 괴심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 병장의 고등학교 동문들은 지난 2017년 동신고에서 정 병장을 기리는 기념식수를 진행했고, 이어 조선대에서 정 병장의 명예졸업장 수여를 추진하는 등의 추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연일 흥행몰이 붐이 일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에서는 두 명의 전사자가 나온다. 한 명은 정해진 배우가 연기하는 오진호 소령(가명)으로 실제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숨진 김오랑 소령을 모티브로 했다. 남은 전사자 한 명은 영화 후반부에서 육군본부 B-2병커를 지키던 '조민범' (가명) 병장이다. 영화에서 김범수 배우가 연기한 조 병장은 반란군들의 총기 난사에 쓰러지는 단 한 컷으로 지나간다. 조 병장은 실제 당시 반란군의 총격으로 목숨을 잃은 국방부 제50헌병중대 소속 고(故) 정선엽(당시 23세) 병장을 모티브로 했다. 영화에서는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반란군들의 중요 핵심 인물들의 중심으로 진행되는 탓에 초병인 정 병장의 사망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선대학교 학생이던 정 병장은 지난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연결하는 지하병커 초소에서 초병으로 근무

하던 중 무력진압에 나선 1공수여단을 상대로 마지막까지 저항했다. 영암군 금정면이 고향인 정 병장은 3남 2녀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정 병장은 어린시절부터 총명해 바로 위의 형인 훈재씨와 둘이 광주에 나와 유학생활을 했다. 집안이 어려워 훈재씨는 광주상고를 다니다 바로 은행에 취업해 동생들 뒷바라지를 했고, 부모님과 형의 바람을 알던 정 병장은 조대부중, 동신고를 졸업하며 학업에 열중했다. 의협심이 좋고 애국심이 남달랐던 정 병장은 동신고 재학당시부터 '홍사단' 활동도 해왔다. 조선대 전기공학과 2학년에 재학중이던 정 병장은 자원입대를 했고 태권도를 하고 당치가 좋았던 탓에 서울 용산 국방부를 지키는 헌병으로 군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제대를 석 달 앞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등 신군부의 군사반란이 일어났다. 13일 새벽 신군부 주요 인물인 박희도 1공수여단장이

1공수여단이 기록한 당일 작전일지에는 "1979년 12월 13일 새벽 2시10분께 1공수여단 병력이 상부의 병커 돌격을 지시에 따라 병커 출입구에 헌병 근무자 2명 중 1명은 체포하고, 1명은 반항 사격과 함께 병커로 도주해 사살됨"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군 인사법 상 '전사자'는 '적과의 교전 또는 무장 폭동·반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순직자'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43년 동안 정 병장은 전두환의 반란군에 대항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병역기피' 가수 유승준 20년만에 한국땅 밟나

'비자 발급' 최종 승소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020년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로, 유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소소 판결을 이 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역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지진 대피 훈련 경북 경주에서 4.0 규모 지진이 발생한 30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어린이집 원생들이 지진으로 인한 화재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남구 양림동 '크리스마스 문화축제' 속으로

2일 트리 점화...31일까지

광주시 남구는 12월 한달간 양림동 일대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먼저 12월 2일 오후 5시 팽귄마에 공예거리 잔디광장에서 성탄 트리 점화식이 열린다. 트리는 31일까지 전시된다. 이 기간 각종 문화행사도 펼쳐진다. 2일과 16일, 24일에는 양림동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제2회 양림크리스마스 겨울축제'가 열린다. 이날 겨울축제에서는 주민 400여명이 산

타클로스과 무플프 등으로 변신해 성탄 퍼레이드를 이끌어간다. 또 양림동 CCC센터에서는 14일 오후 7시부터 캐럴 등을 연주하는 성탄 음악 콘서트가 열리고 23일에는 양림동 선교문화와 건축 등 근대문화 유산을 탐방하는 순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팽귄마에 공예거리 잔디광장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와 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오케스트라 관현악 연주, 치어리딩, 마술쇼, OX 퀴즈풀기, 주민들의 소원 편지 이벤트, 주민 결혼식 등 행사도 개최된다. /김다민 기자 kdi@

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사찰 화재로 입적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69)이 칠장사에서 난 불로 입적했다. 조계종은 "지난 29일 오후 6시 50분 경기 안성시의 칠장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자승스님이 법랍 51년 세수 69세로 원적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자승스님의 법구는 칠장사 내 요사채(승려들이 거처하는 장소)에서 발견됐다. 자승스님의 차량에서는 칠장사 주지스님을 향해 쓴 것으로 보이는 "이곳에서 세연을 끝내게 되어 민폐가 많았소", "이 건물은 상좌들이 복원할

것이고, 미안하고 고맙소. 부처님법 전함시다"는 메모 등이 발견됐다. 조계종은 자승스님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분신해 자기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치는 소신공양(燒身供養)을 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경기남부경찰은 CCTV에 자승스님이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하얀색 플라스틱 통 2개를 들고 요사채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을 확인하고 화재와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